



“결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혼여성 10명 중 4~5명 “필수 아닌 선택…無자녀도 OK”

에 키우는 30~40대 만족 적어
44% “식 올리기 전 한번 살아봐”
결혼 필요성에 성별 온도차 커

결혼한 여성 10명 중 4~5명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생각과 함께 결혼 생활에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기혼여성 10명 중 7명은 양육비 등으로 인해 취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미혼남성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 차이가 있었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15~49세) 1만1009명을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44.4%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답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11.5%,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는 37.7%로 조사돼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혼 여성은 전체의 49.2%에 불과했다. 반면 기혼 여성 6%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보다 우세하지는 않지만 결혼에 대한 유보적인 답변도 44.4%에 달하는 것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최근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연령대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비율은 20대 후반에서 57.9%, 40대 후반에서 50.7%로 높았고, 30대 초반에서 4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 결과 기혼 여성 44.4%가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답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초반까지는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30대와 40대 초반에서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생활 만족도가 신통기에 비해 떨어졌다가 노후를 앞두고 일정부분 회복된다는 분석이다.

젊은 기혼여성일수록 무자녀 결혼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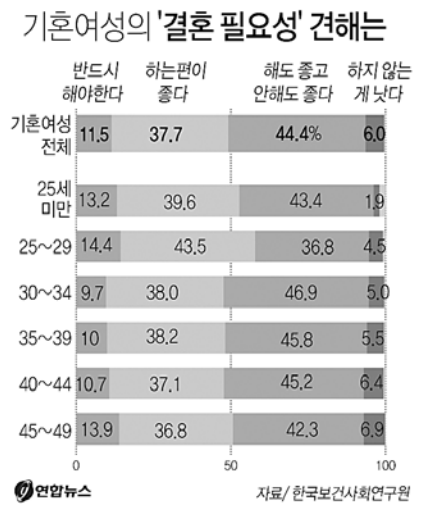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여성 40.2%가 ‘대체로 찬성’, 6%가 ‘전적으로 찬성’이라고 답하는 등 46.2%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5세 미만이 61.5%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 52.1%, 30~34세 52.3%, 35~39세 49.5%, 40~44세 44.5%, 45~49세 40.8% 순으로 나타나 젊은 기혼여성일수록 결혼생활에 자녀가 없어

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취업 기혼여성들은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기혼여성(4790명) 70.2%가 향후 취업의향을 가지고 있고, 이유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때문’(35.7%), ‘납편 수입으로는 생활비 부족’(24.0%), ‘자아실현’(21.4%), ‘노후대책’(7.2%), ‘본인의 경제적 독립’(4.6%) 순이었다.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젊은 기혼여성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컸다.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체 43.9%(전적으로 찬성 7.8%, 대체로 찬성 36.1%)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조사됐고, 56.2%(별로 찬성하지 않음 40.2%, 전혀 찬성하지 않음 16%)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5세 미만 기혼여성의 70.4%는 같은 항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30~34세에서는 55.3%, 45~49세에서는 33.4%로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또 ‘결혼과 무관하게 함께 살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여성의 2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25세 미만은 52%, 25~29세 36.9%로 높았지만 45~49세인 경우에는 21.1%로 낮아졌다.

한편 20~44세 사이의 미혼남성들은 결혼에 대해 60.8%(반드시 해야 한다 18.1%, 하는 편이 좋다 42.7%)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미혼여성들은 39.7%(7.7%, 32%)만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혼여성 52.3%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답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긴다는 분석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

약용 팥 1년간 재지정 금지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약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1년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은 명의대여, 박스같이 등 문제점이 노출돼 왔지만 ‘재지정 금지’ 규정 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

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 6월 현재 전국 439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돼 있다.

인력이나 시설 기준을 속여 부정하게 지정받는 곳이 적지 않았으며 명의를 대여하거나 다른 곳에서 제조한 상품을 박스만 바꿔서 납품하는 ‘박스 같이’ 등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날 확정된 개정 시행령이 8월4일 시행되면 해당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재지정이 금지되는 시설에는 대표자가 같거나 합병, 영업권·자산 양도 등으로 지정 취소된 시설과 사실상 동일한 시설인 경우도 포함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휠체어 5대 타는 버스 부산서 시범운영

내달부터 요금 1000원대

부산에 휠체어 5대와 보호자를 동시에 태울 수 있는 지체장애인 전용 버스가 도입된다.

부산시는 이르면 오는 8월 중순부터 부산 영도구에서 ‘다인승 두리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25인승 저상버스를 개조한 이 버스는 휠체어 5대와 보호자 5명을 함께 태울 수 있다.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도구 동삼동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출발해 영도구청, 해동병원 등을 경유하는 코스로 하루 8번가량 운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요금은 1000원정도로 저렴하게 책정한다.

부산에는 현재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117대가 운행하고 있지만,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나 장애인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다인승 두리발’을 도입하면 장애인 밀집지역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연말까지 시범운행을 거쳐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산 시내 다른 장애인 밀집지역에도 다인승 두리발을 도입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어린이 한방으로 튼튼하게

광주 북구·첨단 ham소아한의원

광주시 북구가 저소득층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구는 21일, 28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드림스타트 아동(3~6세)을 대상으로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동병하치’ 한방진료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

‘동병하치’는 한약재가 함유된 패치를 패의 경락을 자극하는 혈 자리에 붙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법이다.

이에 북구는 겨울이 되면 어린이들이 감기,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쉽게 노출됨을 감안, 기온이 가장 왕성한 여름철 치료로 아이들의 겨울철 건강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광주복지재단 제공>

이번 무료 한방진료 서비스는 첨단 ham소아한의원의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된 다. 삼복첩(삼복 패치)을 부착해주고, 인삼, 외자, 황기 등이 함유된 약선 10팩도 제공한다.

또한 아이들의 기본적인 체질 진료와 건강상담도 병행 실시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한방진료로 올 겨울에는 아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08년부터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여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의 062-410-69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마을 복지 어렵지 않아요

광주복지재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5개 자치구 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마을 복지철학과 우수사례, 실천방법들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시민복지 길라잡이’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모습. <광주복지재단 제공>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쌈강 다슬기 성업중!!

쌈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만으로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춘담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갈증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춘담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쌈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산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화순읍내 큰재수만리

쌈강 다슬기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